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

여성회 46주년 | 2026 연례 보고서 | Annual Report | 2025.7–2026.6

제46주년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6:00 PM
(Chevy Chase Country Club, Wheeling, IL)

5:00 PM 등록

6:00 PM 1부

개회	사회자 (김호정 출판부장)
축가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지휘 표경진, 반주 정혜원)
	1. 아름다운 날 2. 목련화
환영사	박순열 회장
축사	허재은 시카고한인회 회장
축사	홍상우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감사 보고	김미경 감사
회계 보고	크리스틴 윤 회계
차기 회장 발표	박순자 공천위원장
감사패 수여 (박순자 이사장)	박순열 회장
이임사	박순자 이사장
취임사	고애선 신임 이사장
제21대 임원 소개	박순열 회장
단체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라인댄스 공연	회원부 라인댄스팀 (강사 서명혜)
	1. Wait a Minute 2. Don't be Cruel

7:00 PM 2부

저녁 식사	
모듬북 공연	회원부 모듬북반(강사 이애덕)
	1. 각시탈 2. 골든
심해옥 장학금 수여 (김리암 Liam Kim) (김미영 Miyoung Kim) (표하린 Claire Pyo)	권오화 장학위원장
축하 공연	소프라노 김순덕
	1. 꽃구름 속에
	2. Quando m'en vo (푸치니 오페라 La Bohème 중 무제타의 아리아)
싱어롱	다함께
폐회	사회자

Welcome Remarks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싱그러운 이 여름에 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연례 총회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성회를 지지해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회는 46년 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 사회와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섬김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회원들 각자는 친목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 기반 아래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러한 결실을 맺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작년 11월 23일 여성회의 교육부가 주관한 뮤지컬 '영웅들'은 아마추어인 고등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젊은 싱글맘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많은 참여도를 이끌어 냈고, 수익금 5,000불 전액은 싱글맘 후원단체인 New Moms에 기부하였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비스코홀에서 하게 되었는데, 130여 명의 시카고 한인 동포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듯 여성회는 좀 더 나은 방향,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데 주저함 없는 여성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은 지난 두 해 동안 여성회 회장으로의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꿈을 갖고 열성적으로 헌신하시는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은 부드러움을 가진 리더십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리더십으로 여성회의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이임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은 일에 대한 무한 열정으로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사장직에서 퇴임하시지만, 여전히 여성회와 함께 하면서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여성회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취임하시는 고애선 이사장님과 이임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박순열

이임사 | Farewell Remarks

제가 '꿈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성들!'이란 기치를 내걸고 제18대 여성회 회장직을 시작했던 것이 2019년 7월 1일이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2020년 1월부터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대면 행사가 금지되었고 따라서 여성회 활동도 제한적이어서 제가 마음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여럿이었습니다.
그 후 2023년 5월 11일에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면서 여성회의 활동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여성회 이사님들의 수가 3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여성회 합창단(단장 권오화) 창립 35주년 기념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10만 불의 후원금을 모았으며, 4월 21일에 여성회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스코키에 있는 'Northshore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성대히 가졌습니다. 모두 780명의 관중이 오셔서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때 저는 이 기념 공연의 준비 위원장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 중의 하나이고, 이사님들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114분이 이사님으로 여성회의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시카고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자아 발전, 또 우리 가정의 번영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1980년 창립 이후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자랑스러운 단체에서 제18대 회장으로, 또한 제18대 이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기간은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든든한 박순열 회장님과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 그리고 항상 여성회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임원님들과 이사님들이 계시니 우리 여성회가 더 화합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여성회, 천지화육(天地化育)을 돕는 여성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박순자

Inaugural Address | 취임사

눈부신 초여름의 햇살이 가득한 싱그러운 6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카고한인여성회 제46회 연례 총회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사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1980년 창립 이래 한인사회의 필요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교육, 복지, 문화, 친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시카고 한인사회의 중심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때로는 강인한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지탱해 오신 선배님들의 숭고한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시카고한인여성회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단체에서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지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라는 표어 아래, 열정과 지혜로 여성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박순열 회장님과 발맞추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고 싶은 여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봉사와 교육을 제공하여 차세대 교육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거울삼아 그 발자취를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꿈과 열정을 쏟아부으시고 오늘 이임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여성회를 사랑하시며 관심과 격려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사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고,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신임 이사장 고애선

약력

- 1980–1998: Ravenswood Hospital Medical Center in Chicago 근무
- 1999–2018:The John H. Stroger Jr. Hospital of Cook County 근무
- 2009.7–2023.6: 여성회 출판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 2023.7–2025.6: 제 20대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 2018: 광복절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시카고한인회)
- 2021: Awarded a Certificate of Excellence by Cook County Treasurer Maria Pappas

시 카 고 한 인 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Chicago

Phone : 773-878-1900 / 615 N Milwaukee Ave. #11 Glenview, IL 60025 / E-mail: 37kaac@gmail.com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연례 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순열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오랜 시간 동안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은 물론, 한인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리더십 함양에 앞장서며 우리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여성회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은 우리 한인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차세대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는 차세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성회가 보여주고 있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은 젊은 세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세대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박순자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고애선 이사장님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여성회가 더욱 발전하고, 한인사회 화합과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카고한인회 역시 여성회와 함께 손잡고 화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더욱 강하고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연례 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이 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시카고한인회 회장 허 재 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Consul General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제46회 연례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오랜 세월 이민사회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온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꾸준히 이바지해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가족의 일상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 온 여성들의 힘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 온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박순자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취임하시는 고애선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여성회가 지켜온 가치 위에서, 한인사회를 더 따뜻하게 잇고, 차세대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여성회의 역할을 한층 더 확장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주시카고총영사관도 여성회와 긴밀이 소통하며,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협력이 이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홍 상 우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822-9485 Fax: (312) 822-9849

사업 및 활동 보고 | Activities (2025.7.1-2026.6.30)

2025년

6/25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 참석(비스코 홀)
6/25 미주체전(달라스) 참석 시카고 선수단 해단식 참석(BBQ 가든)
6/29 시카고한국전통예술원 '바람, 길을 내다'(크리스찬아카데미) 참석
6/30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종강식 참석(약속의 교회)
7/19 여성회 모듬북팀 격려 방문(한인문화원)
7/23 여성회 라인댄스팀 격려 방문(한인문화원)
7/27 시카고 한국무용단 공연 참석(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
8/7 21대 여성회 1차 정기 임원회 개최(쌍용)
8/9 한인문화원 주최 8.15 광복 역사 강의(마크 피터슨): 우물 밖의 개구리
8/10 한인상공회의소 한인축제(Taste of Korea) 한복 부스 봉사(나일스공원)
8/14 여성회 유스그룹 임원 모임 격려 방문(파네라 브레드)
8/15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및 36, 37대 한인회장 이취임식 참석(메리디안)
9/4 시카고한인여성회 가을 정기 이사회(한인문화원 비스코 홀)
9/6 시카고 서예협회, 해동서예학회 합동전시회 오프닝 참석(한인문화원)
9/20 고 강수상 박사(강정희 이사 부군) 추모식 참석(한인문화원 비스코 홀)
9/20 한인 문화원 이풍자 도서관장과 여성회 연례 총회지 보관 합의
9/27 문화원 영화 상영 관람(광해: 왕이 된 남자, 비스코 홀)
10/18 밀알선교단과 함께하는 볼링대회 개최(알링턴하이츠 소재)
10/30 문화부-눈 건강 세미나 개최(그레이스 배, 문화원 마루)
11/1 시카고마음건강연구소 힐링 토크 콘서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참석(비스코홀)
11/13 제2차 임원회 개최(장충동 식당)
11/15 시카고한인문화원 갈라 참석(비스코 홀)
11/22 제22기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출범식 참석(힐튼호텔)
11/23 교육부 주관 뮤지컬 '영웅들' 공연 개최(문화원 비스코 홀)
12/5 시카고간호사협회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의 밤 참석(비스코 홀)
12/7 안젤라 라인댄스 연말 파티 참석(로즈몬트 힐튼호텔)
12/19 골든클럽-임윤찬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단체 관람
12/20 시카고 한국 무용단 후원의 밤 행사 참석(문화원 비스코 홀)
12/21 여성회 감사의 밤 행사 개최(힐튼호텔)
12/28 한인회 송년 파티 참석(Chevy Chase)

2026년

1/8 신년하례식 및 제3차 임원회 개최
1/12-18 여성회 회원들과 태평양 연안 크루즈(6박 7일)
1/29 샴버그 H-Mart 오프닝 행사 참석
2/1 부동산협회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제인전 이사장 취임)
2/2 여성회 합창단 개강식 격려 방문(에버그린 교회)
2/5 공천위원회 및 제1차 실행위원회 모임
2/12 제2차 실행위원회 모임
2/14 New Moms에 뮤지컬 '영웅' 수익금 $5,000 전달
2/20 교육부 담당자와 KAMBE 회장단 AI 교육 관련 미팅
2/21 설날 양로원 방문(봉사부, 나일스 양로원)
2/24 사무실 사용 관련 한인회와의 모임
2/24 전 미주 장애인체전 일일식당 모금 행사 참석
2/26 제4차 정기임원회
3/1 3.1절 기념식 및 한인 단체장 상견례 참석(비스코 홀)
3/5 제2차 공천위원회 모임
3/15 일천만이산가족 윷놀이 참석(비스코 홀)
3/26 제3차 실행위원회 모임
4/1 제3차 공천위원회 모임
4/2 봄 정기 이사회
4/9 문화부-종이접기 강좌 개최
4/11 한울 연례 기금 마련 만찬 참석(Chevy Chase)
4/20 고 서병인 회장 장례식 참석(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
4/23 제5차 임원회 개최
4/26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 강의 참석(힐튼호텔)
5/12 임시 임원회 개최
5/18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이건희 컬렉션 관람
5/23 가정의 달 행사 개최(비스코 홀)
5/30 시카고한인간호사협회 주관 '부정맥' 강의 참석(비스코홀)
6/11 6차 임원회 개최
6/28 제46주년 연례 총회 개최(이사장 이취임식)

제1차 정기 임원회(2025. 8. 7(목) 6 pm, 쌍용 식당)
·임원 각자 소개 및 부서별 하반기 활동 계획 발표
·회장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회'로 거듭나자
·주제 강의: '시카고한인여성회 50주년을 바라보며' (강사: 고애선)

제2차 정기 임원회(2025. 11. 13(목) 6 pm, 장충동 식당)
·부서별 행사 평가 및 내년 상반기 계획 발표
·단체 보조금 지원은 연간 1회로 제한.
·여성회 연례보고서 한인문화원 도서관 비치 결정
·연말 감사의 밤 행사/ 2026년 가정의 달 행사 토의
·주제 강의: What is ADS(Adult Day Service)? (강사: 박순열)

제3차 정기 임원회(2026. 1. 8(목) 6 pm, 장충동 식당)
·신임 이사 행사 참가비/이사회비, 이사비 인상 건 실행 이사회 토의 후 이사회 안건 상정
·연말 감사의 밤 행사 평가(전체적으로 양호, 힐튼호텔 유지)
·가정의 달 행사 계획 발표(김정아 준비 위원장)
·주제 강의: 각자 새해 소망 발표하기

제4차 정기 임원회(2026. 2. 26(목) 6 pm, 장충동 식당)
·5월 가정의 달 행사 준비 사항 토의(5/23, 토, 3 pm, 비스코 홀)
·봄 정기 이사회 준비 점검(강사 이영옥 교수)
·실행 이사회 회의 결과 발표

제5차 정기 임원회(2026. 4. 23(목) 6 pm, 장충동 식당)
·봄 정기 이사회 평가
·가정의 달 행사, 연례 총회 준비 점검
·실행 이사회의 나이와 임기 제한 필요성, 실행 이사회와 임원회 권한 정리 필요

임시 임원회(2026. 5. 12(목) 6 pm, Omega 식당)
·5월 가정의 달 행사 점검과 구체적인 임무 분담
·연례 총회(6/28) 준비 사항
·이사(연회비 100불), 회원(연회비 10불) 회원 확보 필요

제6차 정기 임원회(2026. 6. 11(목) 6 pm, 장충동 식당)
·5월 가정의 달 행사 평가, 개선할 점 토의
·6월 연례 총회 준비 점검 (연례 보고서 준비, 임원별 임무 분배)

Annual Meeting | 연례 총회

제45주년 연례 총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여성회 45년 역사의 문을 열게 되는 연례 총회가 6월 22일, 윌링에 위치한 Chevy Chase Country Club에서 이사 및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호정 출판부장의 사회와 여성회 합창단의 축가로 시작한 총회는 박순자 이사장의 환영사, 최은주 한인회장과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감사 및 회계 보고가 이뤄졌으며, 공천위원장인 박순자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으로 고애선 현 회장이 내정됐음을 발표했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고애선 회장에게는 감사패를, 구광자 전 회장이자 이사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고, 유스 그룹 학생들에게는 KAWAC Rising Leader Award가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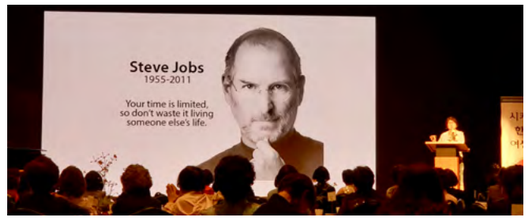
고애선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21대 박순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표어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회'로 정했다"라며 "함께 일한다는 것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여성회도 성장하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여성회가 지역사회는 물론, 한인 사회, 주류 사회와의 소통을 늘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참석자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한 총영사는 이날 축사에서 "여성회는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여는 물론 회원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균형을 이루는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단체"라며 여성회의 활동을 치하했다. 2부 행사는 회원부의 라인댄스와 모듬북 공연, 심해옥 장학금 수여와 소프라노 최명임 씨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행사로 21대 여성회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사장: 박순자, 총무: 정정희, 서기: 정지연)

2025년도 가을 정기 이사회

2025년 가을 정기 이사회가 9월 4일 오후 6시,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 홀에서 이사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여성회 합창단의 '밤양갱'과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된 1부는 박순자 이사장의 환영사, 전 회의록 낭독, 회계 보고, 감사 보고, 박순열 회장의 업무 보고, 부서별 보고로 이어졌다. 이날 16명의 신임 이사가 인준됐는데, 특히 30대 신임 이사(합창단 박보영)의 합류로 여성회의 차세대 참여 확대에 기대가 모아졌다.
박순자 이사장은 "반세기 전 여성회를 설립한 선각자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 화합하여 지혜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으며, 박순열 회장은 "앞으로 다양하게 계획되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봉사부의 '밀알선교단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와, 문화부의 그레이스 배 박사(Dr. Grace Bai) 초청 '눈 건강 세미나'에 대한 계획도 발표되었다. 또, 2026년 1월 12일부터 6박 7일간 '태평양 연안 크루즈 여행'에 대한 발표와 인원 모집 안내가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시카고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박사의 '행복을 선택하는 삶'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진 싱어롱 시간에는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가을 동요 '과꽃'을 부르며 가을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 명단(총 16명)
공경숙, 김기란, 김경희, 김영신, 김영업, 김회숙, 남경숙, 박보영, 소선주, 유재경, 이영희, 이인옥, 장진숙, 최문희, 황영옥, 황정이 (가나다순)

2026년도 봄 정기이사회

2026년 봄 정기 이사회가 4월 2일 오후 6시, 8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 홀에서 열렸다. 정지연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여성회 합창단의 '못 잊어', '장미'로 시작하였고, 박순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감사 보고, 박순열 회장의 활동 보고 및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신임 이사로 김지혜, 송선례, 채명희, 임경혜 등 4명이 신임 이사로 인준되었는데, 이중 김지혜 이사는 26세의 차세대로 여성회 합창단 박순옥 이사의 딸인 동시에 홍화표 이사의 며느리이기도 하여 여성회의 미래가 한껏 더 기대되었다.
박순자 이사장 겸 공천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여성회 회장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고 김호정 출판부 부장 겸 합창부 단장이 회장으로 확정되었다.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과 만찬으로 1부를 마무리했고, 2부에서는 시카고 옥튼 칼리지(Oakton College)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수필가인 이영옥 교수의 'AI 쓰나미: 어쩔 수가 없다? 어쩌면 Happy Ending?'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돼 한창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신임 이사 명단(총 4명)
김지혜, 송선례, 임경혜, 채명희 (가나다순)

젠슨 황이 발표한 'AI 에이전트'의 새 도약
(3/21/26)

'어쩔수가 없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

- 'AI 시대의 고용 불안'이라는 보편적인 공포
-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능(이기심)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줌

파멸의 메시지:

- 아버지: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야"
- 딸(10세): "뿌리부터 썩어버렸어" (마당에 시체를 묻고 심은 나무를 보며)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

AI를 '기계'가 아닌 '관계하는 존재'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시도하는 존재로
AI의 '수명'과 '유한성'이라는 철학적 질문
AI가 감정을 배워가는 과정
"AI가 인간을 돕는다"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연말 파티 | End of Year Party

2025년도 연말 '감사의 밤' 행사

여성회 연말 감사의 밤 행사가 12월 21일(일)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회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 보고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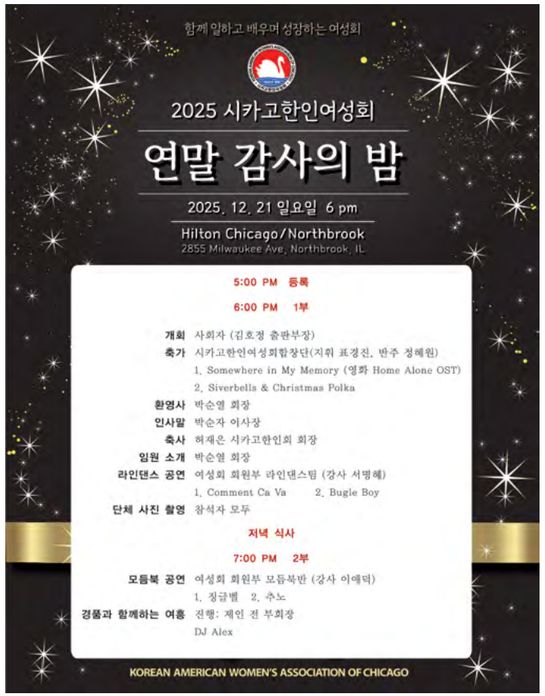
행사 1부는 합창부의 핸드벨 연주를 곁들인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박순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여성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며, 끊임없는 후원과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박순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 여성회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여성회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허재은 한인회장 또한 축사를 통해 "여성회의 책임감과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라며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격려했다.

이어 임원 소개와 내빈 소개, 라인댄스와 모듬북 등 공연과 다양한 게임과 오락 및 경품 추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여성회는 한 해 동안 각종 행사와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며 감사를 전했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따뜻한 연말,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되었다.



Membership | 회원부

(부장: 제인 전)

회원부 클래스인 라인댄스팀과 모듬북반은 활발한 클래스 운영으로 회원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여 풍부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 생활에 활력을 드리고, 백 세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매주 클래스에 임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총회와 12월 연말 파티 공연 등 여성회 행사에서는 물론, 점차 한인 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동참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회원부의 모든 클래스는 학기제(분기별) 상시반으로 새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고, 초보자, 경험자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왕초보자에게도 활짝 열려 있으니 여성회 클래스에 조인하셔서 삶의 즐거움과 활기찬 긍정의 에너지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회원부 모듬북의 '아! 대한민국' 공연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민족의 자부심을 한층 고취하는 데 일조했으며, 회원부의 두 클래스는 12월 연말 파티 공연, 봉사부 설맞이 양로원 방문 공연, 부동산협회 초청 공연, 여성회 5월 가정의 달 행사 공연을 했으며 6월 연례 총회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수요 라인댄스 (강사 서명혜): 매주 수 2:30 PM 문화원 #9820
– 수강료 $50/분기 (3개월)
토요 모듬북 (강사 이애덕): 매주 토 11:30 AM 문화원 #9820
– 수강료 $240/학기 (6개월,북 대여 별도 $10/월)
문의: (847)990-0554, DreamHomeWithJane@gmail.com

합창부 | Choir

(부장: 경정옥, 차장: 고희숙)

〈2025.6.22 연례 총회〉

올해로 창립 37주년이 되는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은 함께 노래하고 배우며 성장하고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45명의 단원들은 유능하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의 지도로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며 화음을 맞추어 즐거운 연습을 합니다 .
매 5년마다 스코키 소재 퍼포밍 아트 센터(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대규모 정기 연주회를 가지며, 매년 봄과 가을 이사회, 연례총회, 연말파티, 가정의 달 행사 등 여성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공연을 합니다. 또 외부 행사에 초정 받아 연주 활동도 합니다.
매월 단원의 생일 축하와 종종 회식도 하며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2025.9.4 가을 이사회〉

〈2026.4.2 봄 이사회〉

2025년도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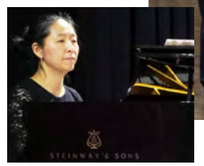
8. 4 (월) 개학
9. 4 (목) 가을 정기 이사회 합창
12.21(일) 여성회 감사의 밤 합창
12.22(월) 겨울 방학 시작

2026년도 활동 내용

2. 2 (월) 개학 회식(박순열 회장 후원)과 연습
2. 21 (토) 나일스 양로원 공연(봉사부 주관)
4. 2 (목) 봄 정기 이사회 합창
5. 23(토) 여성회 가정의 달 행사 합창
6. 28(일) 여성회 연례 총회 합창

〈2025.12.21 연말 파티 '감사의 밤'〉

〈표경진 지휘자〉



〈정혜원 반주자〉

단장: 김호정 | **부단장:** 박희숙 | **감사:** 권오화
고문: 구광자, 박순자, 김조숙, 연숙자
부장: 경정옥 | **차장:** 고희숙
파트장: 수잰 김(Soprano), 최진숙(Mezzo), 박정희(Alto)
친교부: 봉영옥, 지재란
홍보부: 서명혜, 김영옥

연습 시간: 매주 월요일 7 PM
장소: 에버그린장로교회 196 Highland Ave. Wheeling, IL
문의: (847) 702-0695 | (224) 805-1945

〈2026.5.23 가정의 달 행사〉

Golden Club | 골든클럽

(부장: 이광자, 차장: 김정아)

피아니스트 임윤찬, 시카고심포니와 협연 단체 관람

2025년 12월 19일, 여성회 50여 명은 다운타운 소재 시카고심포니오케스트라(CSO) 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했다.
2023년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으로 이미 시카고 지역 청중들을 감동케 한 바 있는 그는, 이날 연주에서는 낭만주의 특유의 사색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 다시 한번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2년 최연소 나이로 Van Clyburn 콩쿠르 우승 이후 세계적인 무대를 오가며 찬사를 받고 있는 임윤찬은, 이번 연주에서 특히 CSO 차기 음악 감독으로 지명된 핀란드 출신의 젊은 거장 클라우스 메켈라(Klaus Makela)와 함께해 더 주목받았다.
한편, 여성회 회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체험을 기획하고 있는 골든클럽은, 이날도 참석자들이 단체 버스를 통해 편안히 이동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기획하였고,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을 다같이 관람하는 행복한 연말 한때를 같이했다.
임윤찬은 오는 2026년 7월 11일에 Ravinia Festival에서 또 한번의 연주를 할 예정으로, 역시 단체 관람을 계획 중이다.

이건희 컬렉션 〈한국의 국보: 한국 미술 2천년〉전 단체 관람

2026년 5월 18일,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개최한 〈한국의 국보: 한국 미술 2천년〉 전시회 관람을 위해 총 52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전시를 기획한 지연수, 양승리 두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모두 시대를 초월한 작품 속 생동감과 섬세함에 감동했고, 2,000년전 선조들의 예술성에 감탄하며 역사 앞에 엄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평생 수집한 개인 소장품 23,000여 점을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하여 그중 국보급 140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순회 전시 중인데, Washington DC, Chicago, 영국 London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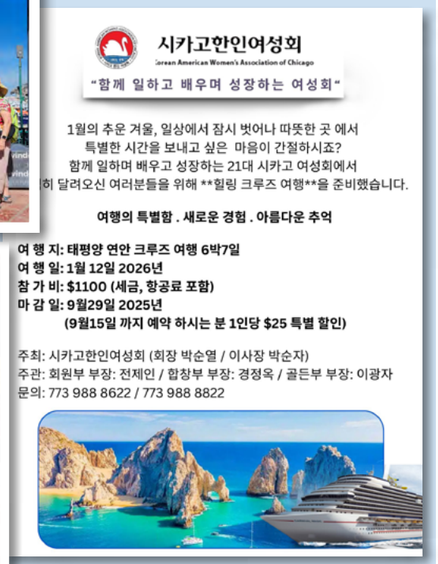
Pacific Coast Cruise Trip 태평양 연안 크루즈 여행

태평양 연안 크루즈 단체 여행이 2026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 여성회 회원들과 가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회원부, 합창부, 골든클럽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LA 공항을 거쳐 롱비치에서 크루즈에 승선하면서 여정을 시작했다.

일정은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의 이색적인 낙타 타기 체험, 엘 아르코 보트 투어, 앤세나데 유명 관광지 구경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여성회가 주관한 퀴즈와 게임, 댄스파티를 겸한 여흥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이 여행을 통해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며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힐링의 시간에 행복해했다.

행사에 동참한 박순열 회장도 "일상을 뒤로 한 진정한 쉼이 있는 시간이었고, 참석자들이 서로 마음을 열며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여행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

1월의 추운 겨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따뜻한 곳 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죠?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21대 시카고 여성회에서
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힐링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의 특별함 . 새로운 경험 . 아름다운 추억

여 행 지: 태평양 연안 크루즈 여행 6박7일
여 행 일: 1월 12일 2026년
참 가 비: $1100 (세금, 항공료 포함)
마 감 일: 9월29일 2025년
(9월15일 까지 예약 하시는 분 1인당 $25 특별 할인)

주최: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박순열 / 이사장 박순자)
주관: 회원부 부장: 전제인 / 합창부 부장: 경정옥 / 골든부 부장: 이광자
문의: 773 988 8622 / 773 988 8822

교육부 | Education

(부장: 허은영, 차장: 고명주)

미혼모 후원 단체 기금 마련 음악회 〈영웅들〉 개최

시카고 지역 내 미혼모 지원 단체인 New Moms를 후원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뮤지컬 '영웅들(Heroes)'이 2025년 11월 23일 오후 5시, 관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스코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교육부와 서정은 감독의 기획과 연출로 마련된 이 행사는, 유명 뮤지컬과 디즈니 영화의 주제곡 14곡으로 구성됐으며, 시카고 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했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이날 곡 중 'How Far I'll Go'(Moana), 'Reflection'(Mulan), 'Part of Your World'(The Little Mermaid), 'A Whole New World'(Aladdin) 등이 특히 큰 인기를 얻었다.

특별 무대로 마련된 판소리 공연에서는 국악인 박주미 씨의 서편제 중 '심청가'가 선보였는데 김덕환 고수의 장단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근영 테너의 '지금 이 순간' 역시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수익금 5천 달러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박순열 회장과 송다인 학생회장, 허은영 교육부장이 New Moms의 최고 책임자 제나 헤먼스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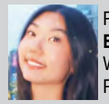
이어 대통령의 날에는 박순자 이사장과 고명주 차장, 학생회 임원들, 서정은 감독, 정지수 학생 감독 등이 뉴맘스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로부터 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허은영 교육부장은 "처음에는 500달러라도 모금해 보자는 작은 기대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분의 정성과 참여로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다"라며 협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무대 경험을 쌓는 동시에 또래 싱글맘을 돕는 의미있는 활동이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인 1세대와 차세대가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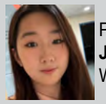
New Moms는 1983년 엘렌 코그스테드(Ellen Kogstad)에 의해 설립됐고, 초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젊은 싱글맘들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시카고와 오크파크에 시설을 운영하며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싱글맘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직업 훈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NEW MOMS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newmom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회 구하은 학생 졸업, 새로운 임원회 구성

여성회 학생회 임원 | KAWAC Youth Committee Officers



President:
Emma Kyuyon Lee
Walter Payton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



President:
Jiwoo Cheong
William Fremd High School

Vice President:
Diane Song
Buffalo Grove High School

Vice President:
Jordan Kwonwoo Hur
New Trier High School

Vice President:
Aiden Kang
New Trier High School

Secretary:
Sarah Chang
Glenbrook North High School

My name is Elie Koo, and I recently graduated from Barrington High School. Next year, I will be attending Saint Louis University studying Global Studies on the direct law path. In the future, I hope to work as a medical malpractice lawyer. Being on the youth board for KAWAC, I have experienced many great leadership opportunities and met such inspiring women. Through the events that I have helped organize, have taught me to be a supportive teammate and have helped me learn more about my background and culture. I wish to share the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 in college and hope to inspire others with the confidence and skills that I have built from KAWAC.

문화부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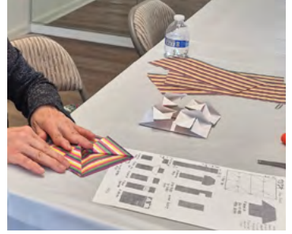
(부장: 정원숙, 차장: 수잰 김)

눈 건강 세미나 개최

2025년 10월 30일, 시카고한인문화원 마루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눈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과 전문의 그레이스 배(Dr. Grace Bae) 박사를 모시고 열린 이날 세미나는 '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백내장, 망막,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 녹내장, 안구 건조증 등 대표적인 안질환을 소개하고 관리법을 설명했다.

그레이스 배 박사는 추운 날씨에 히터를 자주 사용하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다며 건조한 실내 환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생선, 견과류, 브로콜리, 아보카도, 달걀 등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1년에 한 번은 안과 정기 검진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이 열 냥이면 눈이 아홉 냥'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 자외선 차단, 금연, 충분한 휴식, 안약 사용 시 주의 등을 당부했다.

박순열 회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문화생활도 즐길 수 없다. 소중한 눈을 돌보고 간직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종이접기 세미나 개최

2026년 4월 9일, 한인문화원 '마루'에서 종이접기 전문가 소선주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7 Secret Box' 작품을 만든 이날 행사는, 색다른 문화 체험의 기회는 물론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 집중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정에서도 강사의 단계적 설명을 따라 하며 점차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이날 완성된 7 Secret Box는 7개의 포켓을 갖춘 실용적인 종이 상자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로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워했다.

종이접기는 반복적인 손동작과 순서를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집중력을 향상하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선주 강사는 위스콘신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종이접기 전문가로, 주 정부 아트 보드 선정 '50인의 아티스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 밀워키에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Service | 봉사부

(부장: 이숙현, 차장: 고미숙)

장애인과 함께하는 볼링대회

시카고 밀알선교단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2025 사랑의 볼링대회'가 2025년 10월 18일(토) 알링턴 하이츠 소재 베벌리 레인스(Beverly Lanes)에서 여성회 회원 및 장애인과 그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봉사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능숙하진 않지만 열심히 공을 굴리며 즐겁게 운동하는 열정을 보였다.

열 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도전과 웃음을 선사하는 볼링은 이곳 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의 하나로 알려졌는데, 이날도 가족과 함께 저마다 실력을 뽐내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사랑을 담은 구디백과 볼링 우승 메달을 증정하면서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함께했다.

박순열 회장은 "재미있게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여성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설맞이 양로원 방문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봉사부 주관으로 2026년 2월 21일 나일스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뜻깊은 설 명절을 함께보내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이숙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순열 회장과 여성회 임원들은 양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박순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공연은 여성회 합창부의 설날 노래로 시작해 헤세드 워십댄스, 라인댄스, 모듬북 공연, 크로마하프 연주, 송사론의 장구춤 등 다채로운 무대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양로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장기자랑 시간은 현장에 큰 감동을 주었다. 김정옥 씨의 독창 '봄 처녀'와 '메기의 추억', 남궁운자 씨와 올해 102세가 된 김경희 씨 두 분의 시편 23편 암송, 이 헬렌 씨의 피아노 연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성회는 준비한 떡과 양말을 선물하고, '낭랑 18세' 율동과 '고향의 봄'을 어르신들과 부르며 명절의 정취를 더했다. 다채롭고 알차게 준비한 설맞이 양로원 방문 행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며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홍보부 | Public Relations

(부장: 정정희, 차장: 고애선)

홍보부는 여성회의 모든 행사 및 소식을 언론 매체와 일반 사회에 전파하여 여성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또 출판부와 협조하여 여성회에 관한 기사나 사진 등 여성회의 귀중한 역사 자료 수집을 돕고 있다.

Publishing | 출판부

(부장: 김호정, 차장: 한영숙)

출판부는 지난 일 년 동안의 여성회 행사 및 각 부서의 사업과 활동상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작, 매년 6월에 발행하며 여성회의 다양한 행사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포스터와 광고 홍보물, 자료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홍보부와 협조해 자료 수집 및 광고 제작 등을 돕고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연례 보고서, 광고, 여성회 홍보물 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여성회의 귀한 역사 자료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출판부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컴퓨터 디자인, 사진, 편집 등 창의적이고 즐거운 작업을 같이하며 더 아름다운 여성회를 만들고 봉사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다음 자료를 찾습니다.
  - 1989년 발간된 '시카고 여성' 창간호
  - 2015년도 연례보고서

가정의 달 행사 성황리에 개최

여성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나의 가족, 우리 가정' 행사를 5월 23일 오후 3시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 홀에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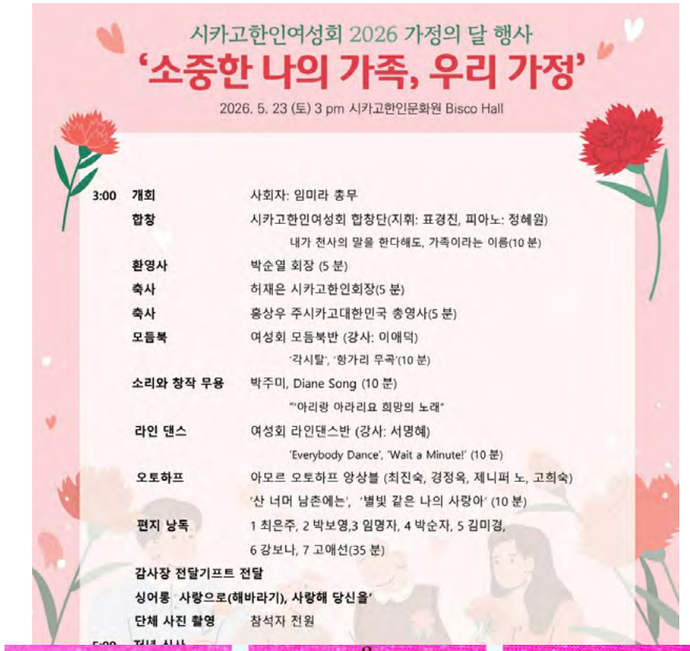
시카고 지역 한인 동포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박순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정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라며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재은 시카고한인회장과 홍상우 주시카고 총영사(고윤성 동포 영사 대독)도 축사를 통해 가족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전하며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여성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에 이어 힘찬 울림의 모듬북 공연, 박주미 씨의 판소리와 Diane Song의 창작 무용은 한국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라인댄스의 활기찬 공연과 여성회 회원들로 구성된 아모르 오토하프 앙상블 연주에 행사장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였다. 7명의 참가자(최은주, 박보영, 임명자, 박순자, 김미경, 강보나, 고애선)는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은 편지글로 큰 공감을 끌어냈다.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의 메시지가 이어지자, 곳곳에서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다.

행사는 다함께 '사랑으로'를 부르며 마무리됐고, 이어진 만찬 시간에는 전문 사진사와 특별히 준비한 사진 촬영 부스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사진을 남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여성회는 앞으로도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무지개 | Rainbow

강 보나
Bona Kang

비를 지나온 하늘에
약속은 색으로 남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
After the rain has passed,
a promise remains in colors—
calling us gently back to life.

사랑하는 수산, 나의 Sue에게,
엄마가 일흔일곱의 생일을 맞으며
삶과 시간, 그리고 너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엄마가 영원히 네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조용히 마음에 담게 되는구나.
My dear Susan, my Sue,
As I turn seventy-seven,
I find myself thinking more about life,
about time, and about you.
I feel my body growing weaker,
and I know I will not always be by your side.

그 생각을 하면
엄마는 나 자신보다
너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
이미 아버지와 이모를 떠나보낸 너에게
더 이상의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Imagine that day,

사랑하는 연우, 선우 그리고 곧 만날 진우에게

우리 연우, 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로 벌써 만 네 살이 되었네. 미국에서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사랑 하나로 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네 천사 같은 모습을 보면 그간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예쁜 꽃을 보면 꺾어다 선물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용감한 누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는 든든한 연우. 부족한 부모임에도 많이 사랑해 줘서 고마워. 너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는 인생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

말썽꾸러기 선우는 누나를 잘 보고 배우렴. 누나보다 열 배는 힘들게 하지만, 너의 눈웃음 하나로 모든 걸 잊게 돼.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막내 진우야, 누나랑 형이 네가 세상에 올 봄을 계속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만나고 싶어.

엄마 아빠의 딸과 아들들로 태어나 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태승/박보영

사랑하는 나의 '진·선·미' 딸들에게

최은주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는 이 눈부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엄마가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구나.
너희를 낳고 '진·선·미'의 뜻을 빌려 이름을 지어줄 때, 엄마에게 어떤 예지력이 있었던 걸까? 신기하게도 너희는 4년 터울로 차례차례 찾아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주인공이 되어주었지. 어릴 적 너희를 한꺼번에 "공주들~" 혹은 "진선미야~" 하고 부르던 그 활기차고 정겨운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구나.
그 시절 엄마는 왜 그리 사랑 표현도 서툴고 엄격하기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너희가 이토록 반듯하고 자랑스러운 한국 여성으로 성장해 주어 엄마는 늘 깊은 자부심을 느낀단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너희 모습이 참으로 대견해. 든든한 사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 [illegible]다.
[illegible]한구석에는 늘 아린 가시가 하나 [illegible]찼던 원진이가 코로나 후유증으 [illegible]가슴이 참 아프구나. 6월에 원진 [illegible] 우리 가족 모두가 첫째 공주 [illegible]되어주자. 엄마도 원진이의 건 [illegible]하고 있단다.
[illegible]뿐이야. 어린 시절 옹기종기 모 [illegible]럼, 이제는 가까운 곳에 모여 [illegible]. 건강하고 우애좋게 서로의 [illegible]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 [illegible]

내 남편의 호칭

나는 아직도 내 남편의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맞선을 보고 1968년에 결혼했다. 올해로 58년째다.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핸섬 보이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관계를 잘 파악하고, 내 일상을 편안하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도와준다.

김성봉 씨와 함께 걷는 이 길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무지개를 탄 듯이 가슴이 설레는 순간들이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우리 둘이서 손잡고 어디로 함께 놀러 갈까요?

박순자 드림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억하[illegible]

고애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문득 시조가 생각납니다. "어버이 살아신 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하리. 평생에 하노라"
이 시조를 생각하면서, 저의 아버지에 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생으로 대하는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자 니다. 어쩌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늦게 지는 저의 모든 소지품을 조사하였으며, 바깥출입을 금하셨습니다. 방학 때는 찬 다니는 것마저 금하셨으며, 방학 내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많은 책을 사다 주셨으며, 공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다 주신 소공자, 소공녀를 비롯한 동화책을 감명 깊게 읽은 후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저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의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혼자 미국으로 훌쩍 떠나온 저를 위하여 아버지는 많은 편지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버지의 편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위대한 사랑의 통로였음을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지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김미경

방마다 열어봐도 볼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가 많은 [illegible]을 채웠던 것을, 이민 1세의 그 고달픈 삶을, 가정을 위해 [illegible]셨던 그 헌신, 고생, 미처 몰랐어요.
병명은 알았지만,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넘어져 가시던 그 [illegible] 딸이 무리하게 아침 식사를 밀어 넣어드린 것이 이 세상에 [illegible]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북에 무너진 재단을 재건해야 하고 총살당한 성가 재 [illegible] 비석을 해야 하므로 나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죽을 수가 [illegible] 고 노래하시던 아버지. 통일이 안 되었는데 어찌 그리 [illegible] 가셨는지요.
아버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셨고, 가정을 소중히 여 [illegible] 다. 해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 [illegible] 별한 말씀, 시편 112:1-2 찬송 559장을 늘 부르며 예배 [illegible] 하시고, 아름다운 꽃다발과 흰 봉투를 나누어 주셨습 [illegible] 그리고는 가훈을 말씀하십니다.
1.교만하지 마라
2. 짧은 인생 이웃에 상처 주지 마라
3. 주님께 헌신 봉사하라
4.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5. 너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시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 내 마음속에 남겨 놓은 [illegible] 과 소망, 믿음, 사랑을,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발자 [illegible]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딸 미경 올림

내 남편 국재 씨

내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따듯함이 묻어나는 사랑 표현의 말도 잘 못하고 과묵한 편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저귀는 새처럼, 표현할 것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맞지 않는 우리는 가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떠한 종교도 없었지만, 절대자에게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회복된다면 마음으로 원망했던 모든 것은 사랑으로 덮고,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남편이 많이 회복된 후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런 큰 사랑은 너무 벅차 표현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불만을 얘기하면 생명이 있으므로 재잘거리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생각하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늘 함께할 수 있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남편과의 사랑의 탑을 쌓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임명자가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기를 마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지역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Chicago
&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시조반

커뮤니티와 함께 | In the Community

여성회는 시카고의 다양한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025.6.27 KPAC 〈바람, 길을 내다〉 공연

2025.7.27 시카고한국무용단 공연

2025.8.10 상공회의소 Taste of Korea 봉사

2025.8.15 한인회 이취임식

2025.9.6 시카고서예협회와 해동서예학회 합동 전시회

2025.9.20 고 강수상 박사(강정희 문화원 이사의 부군) 추모식

2025.10.11 서로돕기 두레센터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2026.3.1 삼일절

2025.12.20 시카고한국무용단 후원의 밤

2025.12.28 한인회 송년파티

2026.2.1 부동산협회 이사장 이취임식(제인 전 여성회 부회장)

2026.3.15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윷놀이

2026.4.20 고 서병인 BISCO 회장(여성회 교육부 후원인) 추모식

2026.4.26 시카고찬양하는사람들 공연

회계 보고 | Accounting Report (7/1/2025~6/16/2026)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5 $ 13,720.87

INCOME		
이사회비	$	**11,400.00**
도네이션	$	**8,100.00**
구광자 ($2,600), 윤금옥 ($1,000), 박순자 ($1,000), 루시백 ($500), 강영희 ($200), 무명 ($300), 루시박 ($200 강사료)	$	5,800.00
박순자 윈티비 인터뷰 ($150), 박순열 1월 광고 ($150) 도네이션	$	3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정기 이사회	$	**1,250.00**
봄 정기이사회 박순자 도네이션	$	1,000.00
김윤태 ($200), 신무선 ($50)	$	250.00
가정의달 행사	$	**2,030.00**
박순자 (Gift card & goodie bag)	$	430.00
가정의달 행사 도네이션 (박순열 $1,000, 김정아 $500, 무명 $100)	$	1,600.00
회원부	$	**10,360.00**
모듬북 클래스비 (3Q, 4Q, 1Q)	$	6,960.00
라인댄스 클래스비 (3Q, 4Q, 1Q)	$	3,400.00
봉사부	$	-
문화부	$	**1,092.00**
눈건강 세미나 회비, Grace Bai 강사비	$	815.00
종이접기 행사 수입 (재료비 뺀후)	$	277.00
교육부	$	**7,105.00**
뮤지컬: Donation & tickets	$	6,905.00
Donation (구광자)	$	200.00
출판부: 연례보고서 광고 후원 (구광자)	$	**500.00**
연말파티	$	**9,060.00**
도네이션 (박순자 $1,000, 김영기 $900, 유니버살여행사 $500, 고명주 $30)	$	2,430.00
Dinner ($5,600), raffle sold ($1,030)	$	6,630.00
합창부: 박순열 도네이션	$	**1,000.00**
연례총회	$	**3,600.00**
이대 시조반, 심정열, 이화여대, 문화원, 간호협회, 시카고한인제일감리교회, Thisle & Plum (각 $500씩)	$	3,500.00
25년 연례총회 ticket	$	100.00
TOTAL INCOME	$	**55,497.00**
Remaining Balance as of 6/16/2026	$	**19,084.08**

EXPENSE		
홍보/광고비/타단체후원	$	4,335.00
한국무용단, 한인회 이취임식, 문화원 gala 광고 (각 $500), 문화원 홀스폰서 ($200)	$	1,700.00
윈티비 근하신년 광고 ($300), 교차로 ($600)	$	900.00
티켓보조 (한국무용단, 두레, 문화원, 부동산협회, 간호사협회, 일천만, 한울)	$	1,735.00
정기 이사회	$	**5,588.62**
25년 가을정기 이사회: 도시락, 강사비	$	2,171.62
26년 봄 정기 이사회: 대관료 도시락, 강사비 / 26년 가을정기이사회 장소 디파짓	$	3,417.00
가정의달 행사	$	**4,034.56**
Bisco Hall 대관료 & 식사	$	2,980.01
사진 ($300), 공연비 ($200) 외 decoration, goodie bag, centerpieces	$	1,054.55
회원부	$	**6,638.01**
라인댄스, 모듬북 강사비	$	3,480.00
장소비 (라댄 & 모듬북 / 3Q & 4Q)	$	1,440.00
연말파티 보조, 개강 간식, 크루즈GC, 문화원 Gala 후원	$	1,718.01
봉사부: 장애우볼링, 양로원방문	$	**842.40**
문화부	$	**1,388.51**
눈건강 세미나 도시락, 강사비, 장소비	$	1,188.51
종이접기 행사 강사비	$	200.00
교육부	$	**8,309.47**
New Moms Donation	$	5,008.00
Bisco Hall Rent ($960), pamphlet, certificate, photo booth ($1,525)	$	2,485.00
KOW BBQ, Pizza, gift cards, 물, 귤 등	$	816.47
출판부: Web hosting, Google storage, website	$	**676.99**
연말파티	$	**10,311.08**
Hilton Dinner ($8,026.60), DJ ($900), 사진 ($300), cash prize & supplies ($584.48)	$	9,811.08
26년 연말파티 디파짓 (Hilton)	$	500.00
합창부: 박순열 도네이션 ($1,000), 합창부 transfer ($2,500)	$	**3,500.00**
기타	$	**4,509.15**
Tax return CPA fee ($550), annual report filing, TR filing & certified mail, checkbook	$	665.06
임원회의, 사서함, 경조사비	$	3,844.09
TOTAL EXPENSE	$	**50,133.79**

여성회 전체 구좌 발란스 as of 6/16/2026		
Main Operating Account	$	19,084.08
여성회 Money Market	$	25,026.78
이선희 기금	$	51,636.66
합창부 Operating Acct	$	9,749.72
합창부 CD	$	102,737.26
Morgan Stanley (as of 6/16/26)	$	106,917.86
Total	$	**315,152.36**

이선희 기금
- 3.65% (11/22/2026) / $51,636.66

합창단
- 3.60% (2/15/2027) / $25,000.00
- 3.67% (10/31/2026) $23,241.26
- 3.99% (12/5/2027) / $54,496.00

(7/1/2026~6/30/2027) Accounting Report | 예산 보고

수입 예산안			지출 예산안		
Donation	$	**21,000.00**	Operating Expense	$	**10,000.00**
일반 후원금	$	14,000.00	홍보 및 기관단체 후원금	$	5,0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한인문화원 사서함	$	500.00
장재철, 장순진 후원금	$	5,000.00	정기 임원회, 수련회 및 행사	$	3,300.00
			경조사비	$	500.00
			세금 보고 및 사무용품	$	700.00
Event Income	$	**27,000.00**	Event Expense	$	**26,500.00**
이사회비	$	13,000.00	봄, 가을 정기이사회	$	5,500.00
연례총회	$	7,000.00	연례총회	$	7,000.00
연말 감사의 밤	$	7,000.00	연말 감사의 밤	$	7,0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5월 가정의달 행사	$	5,000.00
Program Income	$	**29,000.00**	Program Expense	$	**36,500.00**
회원부	$	11,500.00	회원부	$	10,000.00
골든클럽	$	2,000.00	골든클럽	$	1,500.00
문화부	$	1,500.00	문화부	$	1,500.00
합창부	$	7,000.00	합창부	$	14,000.00
교육부	$	2,000.00	교육부	$	2,000.00
차세대 교육	$	5,000.00	봉사부	$	1,500.00
			출판부	$	1,000.00
			차세대 교육	$	5,000.00
			예비비	$	**4,000.00**
Total Income Budget	$	**77,000.00**	**Total Expense Budget**	$	**77,000.00**

KAWAC Choir Acct. (7/1/2025~6/16/2026) | 합창부 회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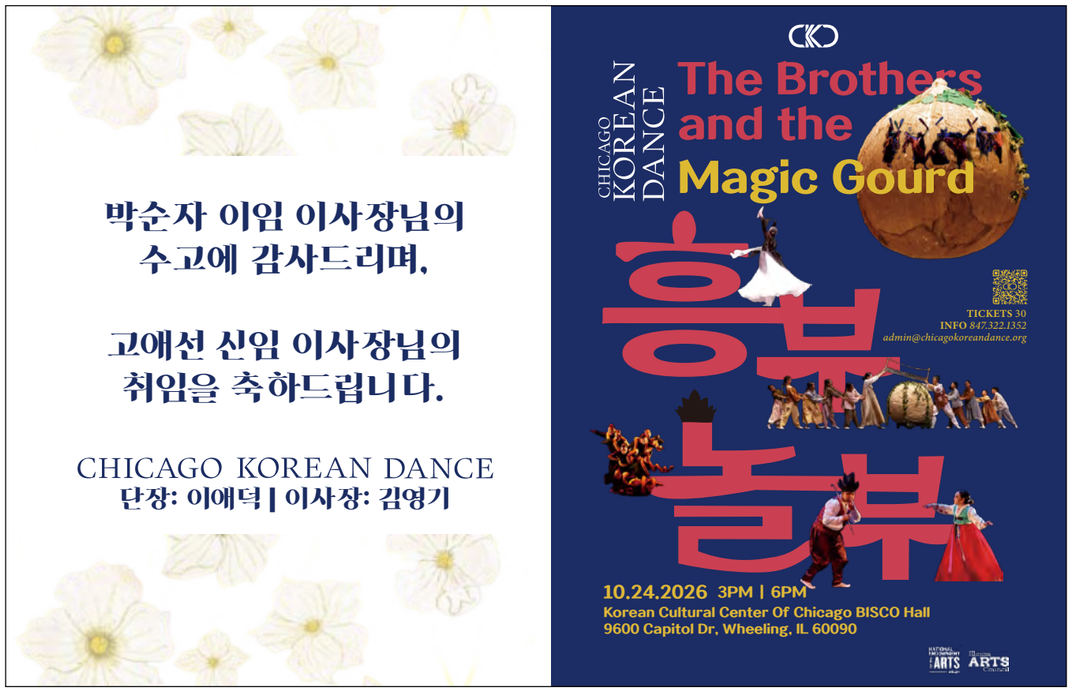
Income		Expenses	
전년회계 이월잔액	4,009.89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축하비	11,680.00
여성회 지원금	2,500.00	교회사용비	2,000.00
단원 회비	6,120.00	단원 생일축하케익	1,026.44
후원금		단원 식비	2,103.04
권오화	2,000.00	악보 복사/Supplies	848.63
장재철	5,000.00	CD 에 보탬	3,138.36
박순열	1,000.00	퇴단단원 단복비 환불	160.00
단복 대여비	245.00	단원 이사비 협조	100.00
CD 에서 옮김	10,000.00	빌린 금액 반환	3,000.00
임시로 빌린 금액	3,000.00	은행 서비스 비용	68.70
Sub Total	33,874.89	Sub Total	24,125.17
Balance	9,749.72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정신여중고 동문회

시카고 한인동포사회와 함께
도약하는 제 37대 시카고한인회
도약, 하나로!!!
37KAAC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Chicago
시카고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 Chicago

시카고한인문화원
Celebrate. Connect. K-Culture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시카고한인문화원의 사명은 한국의 문화, 예술, 교육 및 사회 활동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모든 한인과 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한국 문화와 유산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ours: Mon.-Fri. 9 am-5 am Sat. 10 am-3 am Sun. Closed
9925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 (847) 947-4460 / admin@kccoc.org
kccoc.org
BISCO Hall Booking Inquiry
Seol (Lunar New Year)
Korean Children's Day
Hangawi (Korean Thanksgiving)
Museum Collection / Exhibitions
Music / Dance / Pungmul School
Korean Book Library / Book Discussion / Film Screening
Cooking Class
K-Wedding / Field Trip / K-Pop Dance
Youth Leadership & Volunteer Group
Over 80 classes offered
BISCO Hall
Performing Arts Center
Versatile Event Space
Performance & Conference 400 seat Banquet 250 seat
High-Quality Visuals
24x13 ft. LED Screen on stage
Indoor-Outdoor Integration
Easily Accessible to Northern Chicago Communities
Steinway D (9ft) Piano


박순자 이임 이사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CHICAGO KOREAN DANCE
단장: 이애덕 | 이사장: 김영기
CHICAGO KOREAN DANCE
The Brothers and the Magic Gourd
흥부놀부
TICKETS 30
INFO 847.322.1352
admin@chicagokoreandance.org
10.24.2026 3PM | 6PM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BISCO Hall
9600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재미시카고한인 간호사협회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
EST. 1971

재미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

Nurses

회장 남경숙 이사장 김희경 외 회원 일동

고애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박순자 이임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THISTLE + plume

Thistle + Plume is a boutique wedding and event floral design studio

Awards and Affiliations

1431 W HUBBARD ST, SUITE 103, CHICAGO IL, 60642
GRACE@THISTLEANDPLUME.COM
TEL: 646.279.2729
www.ThistleAndPlume.com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 / 시카고한인문화원 풍물학교 고문
윤금옥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제2대 회장 / 제12대 이사장 / 제4대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장
심정열

박순자 이사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제9대 회장 / 제10대 이사장
구광자

고애선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제18대 회장 / 제18대 이사장
박순자

Past Presidents & Chairpersons of the Board |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회장			
1대	홍성옥	(1980-1987)	작고
2대	심정열	(1987-1989)	
3대	이온희	(1989-1991)	작고
4대	김성자	(1991-1993)	
5대	최(이)화섭	(1993-1995)	작고
6대	주함숙	(1995-1997)	
7대	김영	(1997-1999)	
8대	권오화	(1999-2001)	
9대	구광자	(2001-2003)	
10대	심해옥	(2003-2005)	작고
11대	강영희	(2005-2007)	
12대	심형란	(2007-2009)	
13대	전명희	(2009-2011)	작고
14대	박규영	(2011-2013)	
15대	최선주	(2013-2015)	
16대	조은서	(2015-2017)	
17대	써니 김	(2017-2019)	
18대	박순자	(2019-2021)	
19대	성유나	(2021-2023)	
20대	고애선	(2023-2025)	
21대	박순열	(2025-2027)	
차기	김호정	(2027-2029)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이사장			
1대	고동혜	(1987-1990)	작고
2대	고난경	(1990-1993)	작고
3대	이숭옥	(1993-1996)	작고
4대	안순영	(1996-1998)	작고
5대	최선옥	(1998-2000)	
6대	이온희	(2000-2002)	작고
7대	김명숙	(2002-2004)	작고
8대	권오화	(2004-2006)	
9대	최(이)화섭	(2006-2008)	작고
10대	구광자	(2008-2010)	
11대	김성자	(2010-2012)	
12대	심정열	(2012-2014)	
13대	김영	(2014-2016)	
14대	강영희	(2016-2018)	
15대	박규영	(2018-2020)	
16대	육원자	(2020-2022)	
17대	심형란	(2022-2024)	
18대	박순자	(2024-2026)	
19대	고애선	(2026-2028)	

Officers |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

제21대 임원
2025.7-2027.6

직책/부서	이름	이메일
회장	박순열	park.soonyeoul@gmail.com
부회장	제인 전	DreamHomeWithJane@gmail.com
총무	임미라	miraim80@gmail.com
서기	한영숙	ysmangum@gmail.com
회계	크리스틴 윤	christine.yoon@bankofhope.com
감사	김미경	michellekim9699@gmail.com
부감사	김현숙	heyhk1@gmail.com
골든클럽	이광자 부장	kwangclee@yahoo.com
	김정아 차장	joycekim92@gmail.com
교육부	허은영 부장	7dobest@gmail.com
	고명주 차장	Spaleakoh@gmail.com
문화부	정원숙 부장	chungwonsook@gmail.com
	수잰 김 차장	Suzwonkim@gmail.com
봉사부	이숙현 부장	sookhyenlee59@yahoo.com
	고미숙 차장	mkochoi@yahoo.com
출판부	김호정 부장	hojeungkim@yahoo.com
	한영숙 차장	ysmangum@gmail.com
합창부	경정옥 부장	croepke@comcast.net
	고희숙 차장	tomsueko@gmail.com
홍보부	정정희 부장	junghee.jeong@yahoo.com
	고애선 차장	aesonkoh@gmail.com
회원부	제인 전 부장	DreamHomeWithJane@gmail.com

제18대 이사회 임원
2024.7-2026.6

이사장	박순자	sjkim719@msn.com
이사회 총무	정정희	junghee.jeong@yahoo.com
이사회 서기	정지연	jennyjung1031@gmail.com

신임 제19대 이사회 임원
2026.7-2028.6

이사장	고애선	aesonkoh@gmail.com
이사회 총무	정지연	jennyjung1031@gmail.com
이사회 서기	이수현	soohyun77@gmail.com

편집 후기

사진과 기사들을 편집하면서, 열정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던 임원과 이사님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시던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 따뜻했습니다.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 김호정 출판부 부장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으로 편집 후기를 대신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영숙 출판부 차장

여성회 사업 및 행사 계획 | Upcoming events

연중 프로그램

- **여성회 합창단:**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지휘 표경진) @ 에버그린장로교회
- **회원부 수요 라인댄스:** 매주 수요일 오후 2:30 (강사 서명혜) @ 시카고한인문화원 #9820
- **회원부 토요 모듬북:** 매주 토요일 오전 11:30 (강사 이애덕) @ 시카고한인문화원 #9820

2026년

7월 11일 임윤찬 공연 관람: 라비니아 팍 (골든클럽)
8월 13일 제7차 정기 임원회
9월 10일 가을 정기 이사회
10월 17일 밀알선교단과 함께하는 볼링대회 (봉사부)
AI 교육 (교육부)
11월 제8차 정기 임원회
꽃꽂이: 센터피스 만들기 (문화부)
12월 20일 연말 감사의 밤

2027년

1월 7일 제9차 정기 임원회 및 신년 하례식
2월 설날 맞이 양로원 방문 (봉사부)
3월 제10차 정기 임원회
문화부 주관 행사
4월 8일 봄 정기 이사회
5월 제11차 정기 임원회
가정의 달 행사 (문화부, 봉사부, 교육부, 출판부)
6월 제12차 정기 임원회
제47주년 연례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kawaoc@gmail.com | www.kawac.org | 9925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주님의 교회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시카고 한인 제일 감리교회

First Korean Methodist Church of Chicago

304 W Palatine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주님의 교회 비전
ACTS 242
Again, Now, Here.
담임목사 : 김광태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예배 (한어) 오전 11:30 본당
주일예배 (영어) 오전 11:30 소예배실
영유아 / 어린이부 오전 11:30 본당 옆 작은 교실
청년부 (한어) 매월 격주 주일 오후 2시 2층 소예배실

금요일 예배
저녁예배 오후 7:00 본당

새벽예배
온라인 새벽예배 오전 6:00 ZOOM

고애선 장로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304 W Palatine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 gmc@fkmcc.org | 847-521-0959